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⑰ 비로자나삼천불도 ②



▶ 한줄 요약
일본 고베 박물관에 기탁 · 소장 중인 〈비로자나삼천불도〉는 법신불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8000구의 화불이 도상에 펼쳐진다. 티끌같은 화불들은 부처가 된 우리의 불성을 상징한다. 이는 대승불교의 목표인 중생 구제와 맞닿아 있다.

대승불교 핵심 시각적 구현…"한국선 국보급"

'광명편조(光明遍照)!' 이 말을 불자라면 무수하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대표적 대승경전인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에 공통으로 계속 나오는 주요 용어. 이는 광명, 즉 '깨달음의 빛이 세상을 두루 비추고 있다' 는 뜻이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나의 안팎으로 이미 깨달음이 충만해 있는 것이 느껴지는가? 불성이 여여(如如)하게 충만한 것이 보이는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말이겠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비로자나 시방화불' 〈비로자나삼천불도〉의 부분, 비단에 채색, 1.96×1.33cm, 고려후기 14세기 추정, 일본 고베 다나카家 소장. 고베시립박물과 기탁 보관.

그림②. 그림①의 부분, 티끌 수 만큼 많은 불성.

고베市 문화재 〈비로자나삼천불도〉
비로자나불 중심해 8000 화불 배치
티끌같은 화불, 우리의 불성 상징해
'자리이타' 대승불교 목표 화폭 담아

티끌 속의 한량없는 불성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읽은 경전 문구들. "광명편조 시방세계(光明遍照 十方世界)"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고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 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법신보편시방중 삼세여래일체동(法身普遍十方中 三世如來一體同)" 등. 모두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대승경전의 장황한 내용들은, 이 핵심 요지를 주구장창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성(佛性)은 삼라만상에 두루 편재한다"라는 대승불교의 핵심 진리를, 본 불화 〈비로자나삼천불도〉는 가감 없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약 2m 남짓 커다란 화폭(현재 크기 세로 1m96cm, 가로1m33cm)의 한 가운데에는 비로자나불이 앉아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티끌 같은 화불(化佛)들은 어림잡아 8000구(현존 화폭은 가로 95구 · 세로 84열)에 달한다. 화면 윗부분 45cm 정도는 훼손되어 후대에 보수해서 덧붙인 모양새가 역력하다. 화엄경에 언급된 "비로자나 시방화불(毘盧遮那 十方化佛)"의 진리를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그림①, ②)

'비로자나불' 은 '광명편조불' 이다. 산스크리트어 '비로자나(Vairocana)' 의 뜻을 직역하면 '광명편조' 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다. 근본불이다. 법신의 현존 방식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광명편조' 이다. 즉, '깨달음의 빛이 사실상 세상없는 곳 없이 두루 비추고 있다' 는 것이다. 깨달음의 빛, 반야지혜의 빛인 이 광명을 '대적광(大寂光)' 이라고도 한다. '대적광전(大寂光殿)' 이란 법당 이름을 사찰 곳곳에서 만났으리라. 대적광, '크나큰 적멸의 빛' 이 바로 법신이고 법신은 시방세계 삼천대천세계에 두루 편재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미 대적광의 '적멸보궁(寂滅寶宮)' 속에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법계(法界)' 라고도 한다.

불교미술, 우리 '본 모습' 보여줘

우선 이러한 진리를 담은 불화가 주는 가르침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자. 모든 만물과 이 만물을 포용하고 있는 드넓은 허공은 안팎으로 이미 깨달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카르마(업)의 굴레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 너 그리고 만물의 본성을 보라는 것이다. 자의식(또는 我相)의 감옥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하나인 줄 알게 되고, 모두가 하나이기에 서로에 대한 자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에 조화롭게 살자' 이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명(無明)' 이 아니라 '불성(佛性)' 이라는 것이다. 단지 윤회의 굴레에 갇혀 보지 못할 뿐. 그러니 '어서 수행해서 보라' 는 비전을 제시한다. 결국, 모든 불교미술은 우리의 '본 모습' 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

日문화재 등록, 우리 유물 수두룩

비로자나불이 현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 불화는 본래 일본 타나카 가문(田中家)에 내려온 소장품으로 수납 상자에는 묵서로 '萬佛畵 田中小左衛門所有寶'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즉, 〈만불화(萬佛畵)〉로 불리며, 일본 전래 이래 타나카 가문의 가보로 대대로 전해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고베시립박물관에 기탁되었고, 〈일만삼천불도(一萬三千佛圖)〉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현재까지 보관 중이다. 그리고 1999년에는 고베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렇게 일본의 유형문화재 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일본 문화재청의 관리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유물은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있다. 이는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부속 도서관에 소장돼 있고 일본 중요문화재로 일찌감치 지정받았다.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초대형 고려불화, 가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 역시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작품이 소장된 일본 현지의 해당 시(市) 또는 현(縣)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작품들이 여기저기 수두룩하다. 본 불화는 일본 카마쿠라 시대 작품으로 분류되었다가, 2002년 가와노(川野) 학예관에 의해 고려불화 신출자료로 다시 소개되었다. 일본에 소장된 수천 점에 달하는 우리 유물은 이렇게 혹은 일본 것으로, 혹은 중국 것으로 분류되는 운명을 맞는다. 그래서 아직 미발굴 상태의 작품들이 부지기수이다. 고려불화라고 일본 문화재청 발간 목록집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믿고,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가면, 허탈하게도 중국 명나라 불화였던 경우가 허다했다. 또 반대로 중국 명나라 작품인데 한국 것으로 의심되는 것도 많았다.

본 불화는 우리나라에서 약탈 된 임진왜란 시점부터, 일본에 있으면서 에도시대에서부터 꾸준히 보수 받은 흔적이 확인된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화의 보존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 화면 윗부분 약 45cm 폭은 크게 훼손되었기에 보수 처리하여 덧붙였다. 가로 18줄의 화불들을 본 폭과 비슷하게 그려서 붙였으나, 색감과 모양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주존불의 천개와 보살의 일부 등에 조잡하게 보채(補彩)한 흔적이 발견되고, 여러 번 접어 이동되었는지 접혀진 선이 선명하다. 시대를 걸쳐 보존하려 애쓴 흔적들이 역력히 보이긴 했지만, 필자가 조사하는 도중에도 박락(바탕 비단 천과 그 위에 바른 물감이 분리되어 떨어지는 현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고베시립박물관의 학예사에게 "이 작품이 만약 한국에 있었더라면 여지없이 국보입니다. 일본 문화재청의 보존처리가 가능할까요"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기억이 난다.

삼천대천세계의 가득한 불성

위에서 말한 인간의 본질은 '무명' 이 아니라 '불성' 이라는 진리는, 대승불교의 핵심인 여래장(如來藏) 사상과 직결된다. 여래장 사상이란 '모든 존재는 여래의 씨앗을 함장하고 있다' 라는 뜻이다. 그 어떤 존재이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녔다. "사람이 곧 부처다"라는 인불(人佛)사상의 근간이 되는 원리이다. 사실, 불교 공부를 하던 초기 시절, 대표적 대승경전들이 참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중생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법신의 입장에서 곧바로 설해놓았으니, 중생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지 않은가"라고. 그런데 깨달은 세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중생에게 말해주는 것이 경전의 역할이므로, 사실 별도리가 없겠다. 법신의 모습이 장황하게 설해지고, 물론 그러한 법계로 가는 수행 방법도 설해져 있다.

단, 대승경전은 꿈이 크다. '부처' 가 되라는 큰 목표를 제시한다. 대승불교의 '대승(大乘)' 이라는 뜻 자체가 '큰 탈 것(mahayana)' 이라는 뜻으로 자신만의 해탈이 목표가 아니라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한다는 이타적 또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제경(諸經)의 왕' 으로 꼽는 〈법화경〉의 핵심 내용은 "부처의 세상 출현의 이유가 모든 인간들이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일승(一乘)의 큰 도(大道)' 를 보이기 위함이고, 큰 도를 실천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본 불화는 부처가 된 모습의 실상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